

새로와지는 韓南大學



李元高
(韓南大學長)

I. 創學精神

“本校의 設立目的은 그리스도의 精神을 가지고 民族, 社會, 世界에 奉仕할 수 있는 有能한 人材를 養成함과 동시에 廣範한 知的 領域에서 基督敎의 世界觀을 바탕으로 새로운 境地를 개척하는 데 있다”라고 本大學의 創學精神을 밝히고 있다. 이는 基督敎의 가치관에 입각한 진실하고 유능한 指導者를 양성하기 위해 韓國語와 外國語를 통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意思傳達能力을 배양하고 現代生活을 成功의으로 감당해 나갈 科學知識을 습득하여 國家와 社會 그리고 韓國敎界에 奉仕할 수 있는 人物을 길러 내자는 것이다.

本大學의 設立主體인 美國 南長老敎 高等教育財團이 30년 전 이곳 大田에 우리 大學을 설립 하던서 표방했던 위와 같은 創學精神 속에서 현재의 校訓인 “眞理, 自由, 奉仕”의 精神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들은 무리 중의 한 大學, 既存大學들에 수자만 하나 더하는 대학이 아니라 크기에 관계없이 분명한 召命과 특색 있는 信仰的 基礎를 지닌 獻身的인 指導者를 양성하여 世界를 활동 영역으로 삼아 일하도록 소원했던 것이다. 이 創學精神을 類目化시켜 보면, 學問的 卓越性(academic excellency), 道德的 卓越性(moral excellency) 그리고 信仰的 卓越性(spiritual excellency)을 균

형 있게 성취시키자는 것이다.

이러한 創學精神은 韓國 大學들이 최근에 겪어 온 급격한 量的 팽창과 內外的 여건에 의한 大學敎育의 많은 苦境 속에서도 놀랄 만큼 큰 변질 없이 30년간 이어져 오고 있으며, 大學敎育 전반에 걸쳐 敎授, 行政, 學生生活指導, 地域 社會 및 海外 協力기관과의 유대 속에서 具體的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1. 學問的 卓越性

大學敎育은 本質上 空間的으로는 世界的인 關心이요, 정도로서는 항상 최첨단적인 개척자이어야 한다. 즉 세계 어느 나라의 局地的 문제도 研究와 關心의 대상으로 다룰 수 있으며 國籍과 人種에 구애 없이 커뮤니케이션과 共同討論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大學이 갖는 이 같은 특수성과 기대되는 使命의 擔當을 위해선 적극적으로 世界人들이 축적해 놓은 知識資源을 섭취하여 活用할 學問的 意志와 그를 통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며 그러한 理解와 活動을 위해 外國語의 자유로운 活用能力이 필수적이다. 原典을 독서하여 분석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여 전달하며 效率的인 意思疎通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本大學은 이러한 必要에 따라 교과과정을 통한 제도적 장치와 Audio 및 Video 시설을 설치하는 시설

적 보강을 통해 外國語教育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西洋人의 生活態度에서 비롯된 學問의 多元化와 研究의 細分化 추세에 따라 흔히 자기 전공 영역에만 국한하여 他學問에 대한 배타적 孤立과 生活人으로서의 統整된 自己定立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영역에 대한 基本的인 知識(something of everything)과 專攻 영역에 대한 完全하고 심오한 지식(everything of something)을 兼備補完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2. 道德的 卓越性

일찌기 우리는 盲目的인 知識이나 公義를 지 못한 價値意識에 근거한 技術의 虛構性과 그 破壞的인 害惡을 歷史的인 古今의 實例를 통해 잘 알고 있다.

따라서 大學教育이 단순한 知識의 傳授나 中立的인 技術練磨의 場으로 끝날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된다.

우리 大學은 설립 당시 美國 宣教師들의 소원도 그러하였고 현재에도 철저한 基督教 信仰의 良心과 희생적인 奉仕와 헌신을 토대로 하여 社會公益과 人類全體의 久遠한 發展에 공헌하기를 힘쓴다. 나보다는 우리의 有益을, 개인보다는 共同體의 平安을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그리하여 合力하여 善을 도모하는 共同善의 追求와 윤리도덕의 높은 수준을 강조하고 있다. 叡智에 빛나는 創意力을 발휘하는 知性人은 熱誠과 성숙한 情緒를 지닌 野性人으로서 同僚들과 共感하고 더불어 일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어야 되고 동시에 公義를 향해 指向點을 갖추고 精誠을 다할 수 있는 德性人이어야 한다. 그의 생활을 통해 最大值(maximum)보다도 最適值(optimum)를 소중히 여기는 道德的 水準을 갖춰야 한다. 우리 대학의 教育을 통해 손해를 당해도 正義를 얻을 수 있고 正直한 敗北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자기의 맡은 일을 天職으로 여겨 온 힘과 정성을 다 기울이는 멋장이를 기르려는 계획이다. 흔히 社會에 아픔을 주는 것은 知識이나 技術의 부족이 아니라 道德性의 결핍에서 연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대학은 社會의 指導者의 素養으로서 높은 道德律을 강조하고 있다.

3. 信仰的 卓越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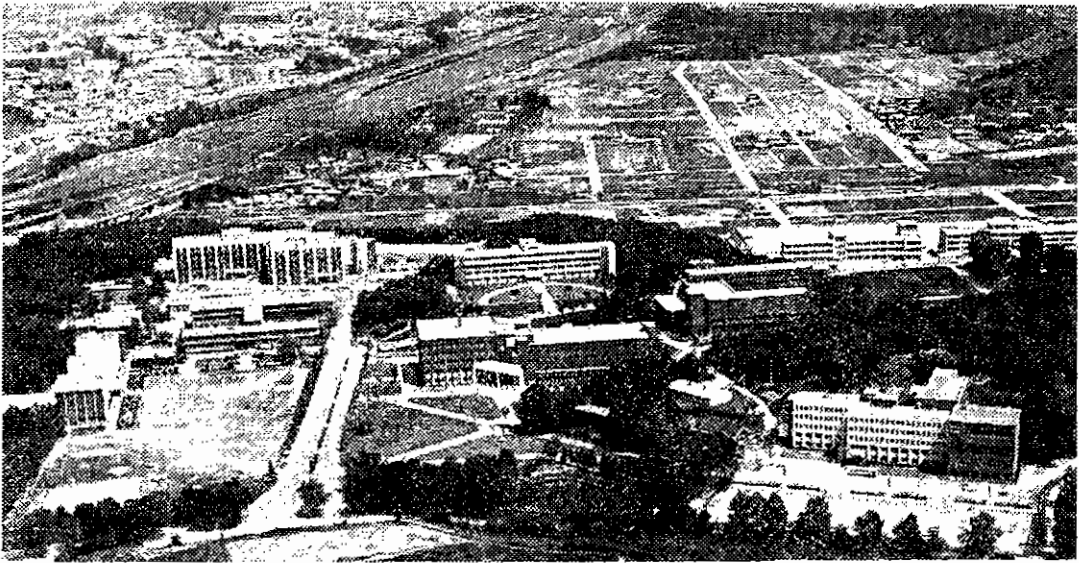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大學發展史를 보면 創立初期에 基督教精神을 기본적인 教育指標로 삼고 보수적으로 출발했던 대학들도 大學人口가 팽창하고, 社會의 要求나 상황의 變化에 적응하다가 대개의 경우 世俗化되거나 信仰的 風土가 退嬰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우리 大學도 그러한 경향을 窺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새로와지는 大學으로서 韓南의 르네상스를 宣稱하는 첫번째 作業이 創學精神의 再確認이었다. 교목실 活動의 強化, 체질을 통한 學園宣敎, 기독교신앙과 價値觀을 體質化하고 사랑과 연민의 경으로 自然과 社會 및 人間을 이해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캠퍼스의 구석구석과 教育프로그램의 마다마디에서 信仰의 고취를 꾀하고 있고 이는 모든 教職員과 在學生 및 同門들의 生活態度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潛在的 教育課程이 되고 있다.

基督敎의 觀點에서 學問을 理解하고 응용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리와 책임이 전제된 經濟學”, “數學을 통해서 본 神의 無限性”, “基督教과 歷史”, “聖書의 國譯에 대한 비판적 考察” 등에 관한 研究는 本大學의 특유한 研究主題들이다.

이 같은 세 영역의 卓越性을 體得하고 訓練된 韓南人들은 社會 각 분야, 세계도처에서 聖職者, 中等學校敎師, 企業體의 中堅幹部로서 봉사하고 있고 이 같은 大學傳統을 계속 伸張시켜 나갈 大學의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다.

II. 沿革과 現況

우리 大學의 設立主體인 美國 南長老敎 韓國宣敎會는 1954년 5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린 定期總會에서 韓國의 基督教青年 男女에게 大學課程의 教育을 시키기 위해 大田에 4년제 大學을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1956년 3월 13일 授業年限 4년제의 大田基督教敎學館(定員 360명)의 認可를 얻었으며(文高 383호), 1956년 4월 10일 開校하여 初代 學長에 인돈박사(Dr. William A. Linton)가 취임하였다. 그 후 1959년 2월 26일 大田大學(Taejon Presbyterian College)으로 設立認可



▲ 지역사회의 敎會에 봉사하는 대학으로 忠淸園의 精神의 중심 역할을 自任하고 있다

를 받아 480명 定員으로 확장되었으며(文高 제 791호), 1959년 4월 15일 大學으로 開校하였다.

草創期에 철저한 少數精銳主義로 敎育을 하였다. 모든 新入生은 洗禮받은 敎人 중에서 聖職者의 추천을 받아 선발했고 도중 탈락자가 많아 어떤 學科는 한 학년 學生數가 敎授數보다 적은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某科에서는 졸업생이 한 명뿐인 해도 있었다. 韓國人과 美國人으로 짜여진 敎授陣은 완벽한 美國式 敎育을 통해 量보다 質, 진실한 基督敎的 指導者 육성, 철저한 實驗 위주의 科學敎育 추진, 고무적인 獎學制度和 男女기숙사 운영, 그리고 開架式 도서관의 晝夜 운영을 통해 높은 수준의 敎育實績을 올렸으며, 1963년 1월 15일에 발표된 제 2회 學士 資格國家考試에 우리 大學 卒業生은 100% 합격되었고 그 綜合成績이 全國大學 중 最優秀였다.

그 후 1971년 1월 美國 宣敎部의 권유에 따라 서울에 있는 崇實大學과 統合하여 崇田大學校로 발전하였으며 통합 10년간 大學發展을 위한 外形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韓國 최초로 서울과 大田에 두 캠퍼스 制度를 운영하면서 崇實의 傳統과 歷史, 大田의 立地와 可能性을 大學發展의 基礎로 接木시키려 노력하였다. 이때 모범적인 實驗 大學으로 대학운영의 內實을 並行 시도했었다.

그 후 1982년 10월 兩캠퍼스의 敎授, 學生, 地域住民들의 종합된 見解로써 獨者的인 發展과 大學發展의 새로운 轉機를 만들고자 두 캠퍼스의 分離 獨立을 결정하게 되었고, 1983년 3월 大田 基督學園이 유지·운영하는 현재의 韓南大學으로 改名 세 出發을 하게 되었다. 大田大學 시절의 소수정예敎育의 質의 수준과 基督敎敎育의 獨創性에 崇田大學校 시절의 量的 팽창과 韓國의 大學 상환에의 적응력을 基礎로 하여 韓南大學은 확대된 量的 發展에 다시 大田大學 設立 당시의 創學精神을 再定立하기 위한 거교적 운동이 일어나 質的 卓越性을 유지하면서 새로워지는 大學, 2000년대의 세계 指導者를 길러 내기 위해 韓南의 르네상스를 宣言하였고, 地域社會와 敎會에 奉仕하는 대학으로 忠淸園의 精神의 中心役割을 自任하고 있다.

현재 大學 구성은 綜合大學校 유형으로 되어 있다. 6개 學部 39개 學科로서 入學定員 2,287명이며 全校生이 8,000여 명에 달하고 있고 文學部(9개 학과), 師範學部(6개 학과), 理工學部(8개 학과), 經商學部(7개 학과), 法政學部(3개 학과), 二部(6개 학과)로 분류되어 있다.

大學院(165명 정원)과 地域開發大學院(145명 정원)이 있어 이미 博士學位者를 배출하고 있으

며 특히 地域開發大學院은 忠淸圈의 行政公務員, 聖職者, 軍高級將校, 企業體 幹部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地方化 시대의 先導와 中部圈 개발에 理論의 센터 役割을 담당하고 있다. 전임교수는 174명이 확보되어 있으며 그 중 53명이 博士學位 소지자이다. 校地는 289,699m²(기준의 101%)요, 校舎는 57,495m²(기준의 114%)이며 體育場은 20,261m²(기준의 153%)가 확보되어 있다. 圖書館 枹적은 기준의 136%, 장서는 54%를 확보하고 있으며 今年에 기증도서 11,875권을 비롯하여 35,000권을 購入 보강하였고 美國, 캐나다를 비롯하여 外國 도서가 계속 기증되고 있다.

博物館은 人類歷史館, 自然史박물관, 미술관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忠淸文化 研究와 百濟時代 研究에 중요한 資料를 소장하고 있고 매년 忠南 地方의 初中高生들의 끊임 없는 觀覽 名所가 되어 있다.

특히 우리 大學의 立地條件이 大學發展을 加速화시키고 있다. 大田은 中部圈 개발의 중심도시로서 國土의 中心地요, 嶺·湖南과 서울을 잇는 三角型의 中心點이다. 현재 85만 人口를 300萬으로 확장하여 首都圈 기능을 分擔遂行할 수 있게 될 展望이다. 大田의 國立墓地, 大德의 研究園地, 淸州의 國際空港, 天安의 獨立紀念館, 서울과 大田間의 中部고속도로의 新設 등 人爲의 조건과 全國에서 가장 청정한 大淸댐의 上水道, 錦江의 下水道 및 鷄龍山이 갖는 觀光 및 安保의 立地條件이 명실공히 도시발전과 人口增加를 초래하고 이 같은 地政學의 要件에 맞춰 우리 大學의 展發計劃과 教育의 內實化를 並行推進하고 있다.

Ⅲ. 大學教育의 推進重點

30년 大學歷史 중 크게 劃이 그어지는 1985년의 第3 跳躍期에 접어든 우리 대학의 教育推進重點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創學理念의 再定立으로서 眞理, 自由, 奉仕의 基督敎的 價値觀을 확실히 生活化하여 甞창된 畧에 草創期에 있었던 人間化教育, 師弟同行, 勉學분위기 진작 및 소수정예主義 教育을 제현시킴으

로써 精神的으로는 復古運動을 벌이고 發展相은 2000年代를 조망하는 韓南의 르네상스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內實 있는 大學運營으로서 學內外에 있는 潛在力量의 總集合 極大化를 실현하는 것이다. 具體的 方案으로서 공부하는 學生, 研究하는 教授, 그리고 奉仕하는 職員의 實像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入學式이 끝난 제 2 교시부터 講義가 시작되고 期末考査 전날 마지막 校時까지 강의가 이어졌던 初期 宣教師 教授들의 傳統은 지금도 여전히 실시되고 있다.

셋째, 發展과 再跳躍의 基礎確立으로서 地域社會 및 個體敎會에 봉사하는 대학, 그리고 世界를 향하여 진출하기 위해 國際交流를 활발히 추진하고 세계의 同年輩 大學生과 경쟁하고 協同하는 大學人을 양성하려고 대학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教授와 行政責任者들이 직접 海外留學을 주선해 주고 있다. 이 같은 目標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大學이 전개하고 있는 사항들을 좀더 자세히 열거해 본다.

1. 創學精神의 再定立

基督敎 大學으로서의 正體를 확립하고 中部圈 敎界高等教育機關으로서의 使命을 감당하기 위해 學內外의 信仰의 風土造成에 노력하고 있다. 전 교생을 대상으로 年中 체를 운영하며 全國의 主要 信仰指導者, 學父兄, 地域社會人士들이 이 행사에 동참한다. 洗禮敎人 중에서 教授와 職員을 채용함으로써 全敎職員의 中堅信者化를 추진하고 학교의 敎育과 業務를 예매의 延長으로 생각하는 분위기이다. 또한 위와 같은 前提 아래 學問研鑽에 전념함으로써 基督敎學校聯盟에 가입된 260여 中學校에 적절한 中等敎師를 養成·輩出해 내고 있다. 어느 學科, 어느 學問을 전공하든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義를 구하라”는 聖經 말씀을 기억하도록 조장하고 있으며 이는 30년 전 大學創立者들이 낳았고 물설은 異國땅에서 이 땅의 靑年敎育을 위해 개인적인 희생과 財政的인 헌금을 不辭快擲했던 그 精神과 垂範을 우리 大學 모든 이에게 傳授시켜 그들도 자기 직장과 이웃과 나라를 위해 희생적으로 奉仕하는 者로 양성하려는 것이다.

2. 大學行政의 刷新

새로와지는 大學像을 實效 있게 성취시키기 위해 大學行政팀이 心機一轉하여 예산의 公開運營 및 節約執行을 추진하고 企劃과 豫告 및 評價와 再投入를 통한 行政體系를 구축하며 責任과 創意 行정을 구현하고 과감한 委任專決制度를 도입하여 分權化를 통한 集團指導體制를 만들었다. 業務의 電算化, 職員能力의 專門化를 병행해 能率行政을 추구하고 行政담당팀의 每日朝會와 週間會議의 活性化, 平教授中心의 각종 委員會의 적극 활용으로 多元의 意見의 體系의 收斂, 諸般規定의 修正과 補充을 통한 制度行政 등을 이번엔 추진해 가고 있다. 교직원들의 資質向上을 위한 職務教育和 海外研修도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3. 勉學風土의 造成

處·室長과 學生幹部 및 學內言論팀들이 月例 간담회를 갖고 對話를 통한 相互理解와 협동으로써 大學生活를 개선해 가는 일을 하고 있다. 幹部學生들의 指導力向上을 위한 人間關係訓練도 하고 있다. 全教授가 學年·學科別로 指導教授制를 활용해 行事지도와 月別 相談活動을 통해 問題의 조기발견과 適應 및 예방지도를 펴고 있다. 물론 新入生을 대상으로 大學生活의 가이드와 學習方法의 指導도 강화하고 있다. 授業運營은 1학점당 16시간을 확보하여 결손이 없도록 유지하고 학생의 個性伸張과 人性지도를 위해 각종의 宗教, 理念, 學術, 奉仕 및 趣味서클을 장려하며 지도교수가 臨場지도하도록 되어 있다. 考試班 운영과 課題도서실의 增大와 함께 도서관의 장서 보강 및 開館時間의 확대를 펴하고 있다.

4. 教授研究活動의 強化

24시간 도서관이 개관되고 實驗室의 불이 꺼지지 않던 중세 유럽의 大學街를 생각하면서 研究所中心의 새로운 研究主題 발굴과 單獨 혹은 國際共同의 研究 추진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學問에 精進하여 著書와 論文을 創意的으로 만들어 내는 教授가 보람과 긍지와 대우를 누리는 大學을 만들고자 한다. 海外長短期 研修기회를 확대하여 年중 全教授의 25% 정도가 외국을 방문해

세미나 참석, 資料 수집 및 見學의 기회를 갖고 있다. 大學院에서는 每週 해당 분야의 國內外 권위자들을 초빙하여 學術강연회를 공개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大學出版部에서는 금년도에도 4천만원의 出版基金을 조성하여 우리 大學 교수들의 專攻著書의 執筆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5. 教授·學生福祉施設의 擴充

外國의 大學들이 學生복지를 위해 치밀하고 자상하게 배려하는 것을 보고 있으며 우리 대학도 敎職員과 學生들의 厚生福祉에 더욱 노력하려고 한다. 年末에 훌륭한 교수와 모범적인 職員을 선정하여 表彰할 계획이고, 學內에 스포츠, 오락 시설 등 여가선용의 기회 확대를 助力하고 있다. 校內 造景을 年次的으로 보강하여 연못을 개축하고 進入路를 확대 신설하였고 常綠樹 植栽을 계속하고 있다. 또 食堂과 福祉施食코너를 증설하였다. 校門 앞까지 시내버스 路線延長을 시켜서 학생들의 登下校를 좀더 편리하게 만들고 있고 二部大學生들을 위해 夜間스쿨머스의 운영을 試驗的으로 실시중이다.

6. 地域社會 및 個敎會와의 紐帶強化

地域社會와 個敎會의 각종 行事와 研修에 學內 敎授들이 講師 혹은 自願奉仕者로 참여하고 있다. 同門들은 1億원 상당의 校訓상징탑을 학교에 건립해 주고 있으며 地域內 有志들이 獻樹, 도서관 장서 기증, 박물관에 史料와 소장품 기증을 해 주고 있다. 또 忠淸圈에서의 産·官·學協同이 잘 되어 지난 달엔 道知事와 각 市郡의 행정책임자 多數 및 言論界를 비롯한 關係學者들이 모여 本大學 지역개발대학원 주최로 “忠南年代의 創造”라는 커다란 學術세미나를 가진 바 있다. 校牧室의 채플과 定期聖會의 강사로, 學生生活研究所의 木曜特講 강사로, 혹은 각종 연구소와 學部 및 大學院과 學生會에서 계획한 특별강연회의 연사로 국내외의 많은 學者, 聖職者 및 斯界의 專門家들이 우리 大學을 訪問하여 크게 도와 주고 있다. 圖書館과 博物館 및 外國語敎育院과 비데오도서관 그리고 電算敎育院은 地域社會에 관람기회 제공과 再敎育機會 제공이라는 점에서 奉仕의 所任을 다하고 있다.

7. 國際交流의 擴大

2000년대엔 政治的 的 의미를 배던 國境線이 無意味할 정도로 經濟와 文化交流는 脫이데올로기의 的이요, 超國境의 일 것이다. 南北韓의 文化藝術團의 交流公演, 東西獨의 交流, 美國과 中共間의 交易增大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대학도 大學生들의 關心과 活動場을 國際化시켜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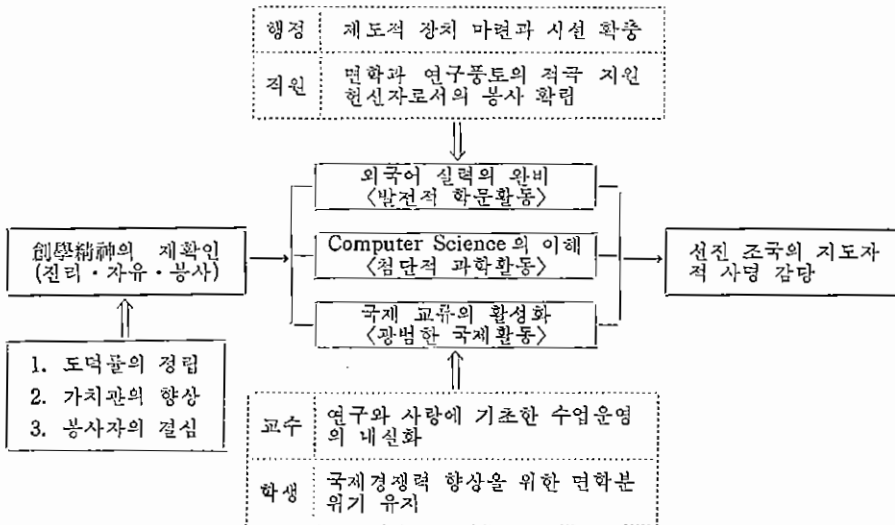
우선 美國과 日本 및 中國에 있는 姊妹大學들과의 教授, 學生交流 그리고 Special Lectureship을 위한 專門家의 왕래, 자료의 交換, 共同研究의 추진 등을 활발하게 추진중이다. 日本의 四國學院大學과는 여러 해 동안 여름방학 때의 共同學生세미나, 敎職員의 交流研修, 留學生의 交換 및 情報와 資料의 교환을 하고 있다. 自由中國의 東海大學, 中國文化大學 그리고 필리핀의 De La Salle大學과 University of Santo Tomas 등에 매년 10명 정도의 校費留學生을 선발하여 파견하고 2년간 生活費와 學費 일체를 지원하려고 한다. 이는 中國의 文化연구 및 中國大陸과의 交流를 위한 준비작업이요 아시아에 있는 英語권을 活用하기 위한 노력이다. 每年 여름과 겨울휴가 기간 敎授와 職員들이 海外短期연수 및 學會와 세미나參席 등을 할 수 있도록 기회 알선과 必要경비의 支援 등을 실시하

고 있다. 또한 文敎部와 有關機關의 도움 외에도 美聯合長老敎 總會와 아시아高等教育後援財團(United Board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in Asia)에서도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있고 이를 極大化하기 위해 學內 교수들이 海外研究支援費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위원회를 조직하여 活動중이고 國際交流委員會에서는 姊妹大學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校費留學生을 선발·파견하며 海外協力기관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그 結實의 하나로 금년에 臺灣의 土地改革訓練所와 자매결연을 맺고 每年 50명 정도의 교직원을 파견해 無料研修를 시키도록 計劃중이다.

Ⅵ. 韓南大學의 特性

敎育은 本質上 未來指向의이다. 현재에 실시되지만 未來狀況의 예측을 前提로 한 活動이다. 따라서 2000년대에 전개될 世界와 우리나라의 形편을 精確하게 展望하면서 大學의 役割과 使命을 調整해 나가야 될 것이다. 따라서 韓南大學의 特性에 대한 規定도 不變의인 要素를 유지하되 狀況의 變化에 屈伸性 있게 대응하는 可變的 要素를 함께 갖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가 확신하는 바로는 基督教高等教育機關이라는 創學精神이 우리 대학의 변할 수 없



〈한남대학의 특성 조건표〉

는 精神의 基礎이다. 이는 우리 대학에서 배우거나 졸업했거나 가르치고 봉사하는 모든 이에게 共通分母로서 共認共感되는 基本約束인데 그 特性의 骨格은 앞 페이지의 도표와 같다.

우리 대학의 특성으로는 높은 道德律, 信仰의 奉仕姿勢 그리고 眞·善·美의 總和인 聖(거룩함) 志向의 가치관 확립이다. 이것을 眞理, 自由, 奉仕라는 校訓으로 정했고 創學精神의 復活運動으로 전개하고 있다. 眞理란 時空을 초월해 永遠한 것이요 때와 곳에 따라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서 우리 대학은 聖經의 敎訓을 그 具體的인 典據로 삼고 있다. 自由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自由(freedom from)” 즉, 궁핍과 두려움 등의 超克도 포함하면서 “무엇을 하기 위한 自由(freedom for)”를 志向한다. 배풀기 위한 경제적 自由, 가르치기 위한 學問의 自由, 判斷하기 위한 思索과 가치의 自由 등을 의미한다. 奉仕란 은 힘과 精誠을 다해 섬김의 姿勢 즉 종(奴婢)의 道理로써 公務遂行에 임한다는 것이다.

이런 정신자세를 갖고 實際 익혀야 될 특징적 조건은 外國語實力의 완비로 國際活動과 發展의 學問活動의 추구에 구애받지 않는 實力人의 養成과 Computer Science를 비롯한 첨단科學의 基本知識을 익혀 現代生活에 낙오되지 않는 科學人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關心의 범주가 세계全體요, 共同生活의 범주가 탈국경적일 수 있는 國際人이어야 하겠다. 이렇게 됨으로써 2000년대의 先進祖國의 運營과 세계사의 造成에 명실공히 先頭走者의 使命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韓南大學의 特性化를 위해 行政은 制度的 장치 마련과 시설 및 예산 確保를 맡고 직원들은 세계적인 棟梁材를 기른다는 금지로 勉學과 연구풍조의 定着을 지원하고 獻身과 奉仕로 임하며 教授는 學問의 研究와 誠意 있는 수업운영에 最善을 다한 것이며 學生들은 國際的 競爭力을 갖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게 될 것이다.

V. 發展計劃과 展望

현재 企劃室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대학의 長短期 發展計劃을 다듬어 가고 있다. 敎育內實을 위해선 實力 있는 大學人養成이 目標이다. 커리

클의 全面的인 재검토가 각 學科別로 진행중이며 專攻性을 제고하여 常識人으로서의 敎養敎育에 결핍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 教授들의 研究여건 조성과 出版 강력을 계속 확대하려고 한다. 學問自體에서 만족과 보람을 얻을 수 있는 대학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 海外研修 기회의 확대를 위해 姊妹大學을 중심으로 教授와 職員 그리고 學生別로 長短期 연수계획을 마련중이다.

뿐만 아니라 外國의 著名한 學者와 教授들을 一定期間 모셔서 共同研究와 특강을 실시하는 Special Lectureship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들 중 상당수는 계속 國際자문역으로 우리 대학을 돕게 될 것이다. 學生들은 歐美地域보다 우리와 文化 여건이 비슷하고 實際 留學경비가 저렴한 東南亞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

그 다음 行政改善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綜合大學體制로 이미 시작된 行政組織을 더욱 效率的으로 가동시켜 課長中心의 責任행정과 業務의 評價, 再投入시스템에 의한 創意행정을 펴도록 직원[職務敎育, 他大學見學, 自體業務評定制도와 職員人事考課制의 改善을 통해 合理的인 士氣管理를 실시할 계획이다.

學生들의 進路지도와 就業 알선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기에 계속 잠재적인 고용현장의 개발과 關係 개선을 통해 유능한 大學卒業生의 就業기회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설 擴充으로서 圖書館의 내적 充實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多目的 活用을 위해 시설 보강, 資料의 購入, 편의시설 마련 등을 통해 大學敎育의 心장부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外國語敎育院에서 운영하는 Video Library의 확충, Wide Screen을 통한 原語영화감상, 많은 外國人들의 直接講義, 電算敎育院의 컴퓨터特講 시설의 보강은 大學敎育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는 보조시설들이 될 것이다. 캠퍼스 造景事業도 향후 수년간 계속 보강되고 무주군에 있는 敎育用 부지에 새로운 修練院도 곧 建設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誠心誠意껏 맡은 일을 감당하며 世界를 향해 雄飛하는 人物의 養成이 發展計劃의 第一 目標임을 다시 確認하고 싶다. *